

조달청-ADB, 아태지역 조달공무원 대상 전자조달 연수 개최

-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아제르바이잔, 인도네시아 등 7개국 16명 참석
- 한국형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직접 체험하여 각 국가별 개선점 발굴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6월 22일부터 6월 26일까지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공동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자조달 역량강화 연수를 개최한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이번 연수에는 ADB에서 선정한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아제르바이잔,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키리바시, 태국 7개국의 조달 분야 실무급 공무원 16명이 참여한다.

이번 연수는 한국의 공공조달과 전자조달 시스템을 참가국 실무자의 눈높이에 맞춰 교육한다. 연수 초반에는 참가국별 조달 현황 공유를 통해 국가별 수준을 진단하고, 중반에는 한국의 조달 제도 및 차세대 나라장터 실무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연수 후반에는 이를 바탕으로 자국 조달 행정의 개선과 발전을 이끌 실질적인 액션플랜(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구조로 진행한다.

특히 지난해 성공적으로 개통한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을 활용해 참가자들이 입찰공고부터 개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직접 체험한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자국 시스템과의 차이점을 더욱 쉽게 비교하고, K-전자조달의 세부적인 운영 노하우를 깊이 이해하여 자국의 전자조달 개선점을 쉽게 발굴할 수 있게 해준다.

이형식 기획조정관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실무자들의 한국의 전자조달 시스템 경험은 자국 조달행정 발전의 실질적인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이번 연수가 전자조달 역량강화에 그치지 않고, 각 국 조달행정의 투명성, 효율성 증대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기획조정관 국제협력담당관	책임자	과 장	김혜경	(042-724-7554)
		담당자	사무관	신봉기	(042-724-7470)

